

日 약탈 문화재 남·북 환수 왜 다른가

평양 울리사지 탑 北 반환 가시화... 같은곳 이천 오층 석탑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평양 울리사지 석탑의 환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일본 내 한국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해문 스님은 7월 2일 "지난 2월 일본 도쿄 간이재판소에 반환을 요청한 평양 울리사지 석탑에 대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7월 22일 오후 문화재청과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양 울리사지 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일제강점기 오후(大倉)호텔 창립자인 오후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문화재다. 현재 도쿄의 오후라 호텔 정원에 전시돼 있다.

이번 평양 울리사지 석탑 반환 조정은 지난 2월 25일 해문 스님이 北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 차금철)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돼 이뤄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본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북한의 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2002년 북일수교 평양선언을 통해 강탈한 문화재 반환을 약속한 만큼 관계자들은 반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평양 울리사지 석탑 반환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같은 호텔에 한국측이 환수 추진중인 이천오층 석탑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

수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일 협정으로 약탈 문화재 반환문제는 해결되었다는 논리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1965년 한일 협정을 하며 4479점의 반출문화재 중 1432점을 '인도'라는 용어 하에 반환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민간인 소유 반출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기증을 권고할 수 있다는 합의 의사록만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쳤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소장은 "당시 협상으로 일본에게 추가로 문화재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의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조선왕조유물 등 문화재들도 명목을 보면 '반환'이 아니라 '기증'의 형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실제파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약탈된 것인지, 어떻게 유통됐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만 환수 논란으로 일본 기관들이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

정작 환수가 진행돼도 민간 차원에서 벌여 부딪히기 일수다. 실제로 이천오층석탑은 2006년 환수위가 구성돼 수년간 반환협상이 진행



도쿄 오후라 호텔의 울리사지 석탑

'북일수교'에 관심갖고 한국정부 적극 나서야

됐지만 오후라 문화재단이 1억 5000만엔(약 14억원) 상당의 문화재와 교환하자는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일본 정부조차 미지근한 반응이다. 오후라(小倉) 컬렉션 반환도 추진 중인 해문 스님은 지난 2월 오후라 컬렉션을 소장한 도쿄국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소장품 소장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도쿄 지방재판소는 '1965

년 한·일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결된 문제'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결내렸다. 이에 스님은 국제박물관협회에 국제청원을 넣은 상태다.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국제박물관협회의 회도 '모든 문화재는 합법적·도덕적·윤리적으로 소장하고 수집하고 구입해야 하며 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화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해외로 유출돼 공식화인된 한국 문화재는 20개국 15만 6000여점에 이르고 그 중 일본에만 6만 6000점이 있다. 특히 일본 유출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강탈했거나 도굴, 도난당한 것들이지만 한일수교 50년임에도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오후라 컬렉션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문화재는 민족의 자존심으로 지금부터라도 길게 보고 유통 경로, 소장처 등의 자료를 모으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환수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트남에 남긴 각현 스님의 원력 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이 6월 26일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 지역에 한국형 사회복지타운 '베트남 연꽃마을'의 한글학당과 도서관, 숙소를 준공했다. 이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각현 스님의 원력이 서린 곳이다. 은사 월탄 스님(사진 왼쪽)과 원명 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법타 스님 등이 베트남 연꽃마을에 남긴 스님의 흉상을 제작하고 있다. <관련 기사 7면> 노덕현 기자

아프리카 학교 짓기, 동전 모아 '3억'

아름다운동행, DreamAfrica 저금통 모금사업 결과

불교계 공익기부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농업 학교 건립을 위해 시작한 동전 모으기 3억원이 넘는 금액이 모여 화제다.

아름다운 동행 측은 6월 30일 "Dream Africa 저금통 모금사업 종료결과 3억 471만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Dream Africa 저금통 모금사

업'은 2014년 8월에 저금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가지 디자인의 저금통을 총 10만개 제작해 2014년 10월부터 전국 750여 사찰과 동국대 산하 중립학교와 불교 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246개 사찰과 18개교 교육기관을 비롯해 22곳의 불교대학, 수행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총 2만 5천여

개의 저금통이 수거돼 약 25%의 회수율을 보였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은 "동전으로 3억 원을 모으기에는 적지 않은 양인데 불자들의 힘을 보여준 것 같다"며 "내년 완공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선상신·하동근 추천

진흥원 후보자 발표... 7월 22일 불교방송이사회서 선임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방송 사장 최종 추천후보에 선상신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조빙교수(前 불교방송 보도국장)와 하동근 한국케이비TV 방송협회 PP협회 회장(前 iMBC 사장)을 선정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6월 29일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공모차 총 9명 중 1, 2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4명의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 2명(선상신·하동근)을 선정 재단법인 불교방송에 공식 추천했다. 선상신 후보자는 1960년 생으로

법명은 해원(海圓)이다.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책대학원 석사,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불교방송(BBS) 공채 1기로 입사해 기지를 거쳐 보도국장을 역임했으며 학교법인 회담학원 감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이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조빙교수, 중국 산둥대학원 한 국학원 겸직교수, 안양대 교양대학 산학협력 교수 등으로 재직 중이다. 1993년 방송기자클럽(BJC) 보도제작상, 1995년 한국기자협회 공로상



선상신 하동근

등을 수상했다.

하동근 후보자는 1955년생으로 법명은 선행(善行)이다. 1981년 한국의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동국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1981년 문화방송(MBC) 보도국 기자, 부장, 정책특보 등을 지내고 iMBC 사장

(2003년~2009년)을 역임했다.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CJ 인터넷·온미디어·CJ E&M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능교육그룹 신규사업부 대표이사, 재능이카데미 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케이비TV방송협회 PP협회 회장,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방송(MBC) 작품상, 특종상 등을 수상했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올해의 동문상 및 서울대 경영대학원 GLA 제정 글로벌 콘텐츠 리더상을 받았다. 한편 불교방송은 7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천년고찰 신륵사서, 천년의 아이디어를

세계 3대 광고제 뉴욕페스티벌, 신륵사서 개막

세계 3대 광고제 뉴욕페스티벌이 7월 1~5일 여주 신륵사를 중심으로 여주일대에서 펼쳐졌다. 7월 1일 법패시연과 함께 문을 연 뉴욕페스티벌은 광고계의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안젤로(David Angelo), 토니 리우(Tony Liu) 등이 참석해 신륵사 순례와 함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첫날인 1일 개막식에서 '뉴욕국제광고페스티벌 in 여주 2015' 테이프 커팅을 마친 원경희 여주시장과 정병국 국회의원, 그리고 뉴욕페스티벌 주관사 마이클오르크 회장 등 일행은 신륵사에서 신륵사의 창건 역사와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불교 의식음악인 '법패' 시연을 관람했다. 이어 법종각에서 여주시민의 무사 안녕과 뉴욕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타종 등 불교문화를 체험한 후 템플스테이관에서 발우공양을 진행했다. 여주 신륵사 주지 청국 스님은 "이번 행사가 끝날 때까지 무사히 잘 마쳐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법패가 진행되는 동안 광고계의 세계적인 거장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감상했다.

마이클 오르크 뉴욕페스티벌 회장은 "진정한 광고관 서로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사회 정의를 알리고 지구를 살리는 많은 광고들에는 서로 다른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광고를 위해 불교사상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여주 선별리 호텔에서 포럼, 세미나, 강연 등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 행사가 열렸으며, 여주도 자세상 물의 회랑 등에서는 수상작 및 출판물 전시·상영회와 함께 흥대 인디밴드 10개 팀이 참여하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뉴욕페스티벌은 프랑스의 칸느, 미국의 클리프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 개최는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두 번째이다. 노덕현 기자

삶은 꿈이 아니다

다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